

국내 RE100 수요 급증

구조적 변화 때문, 국내 관련주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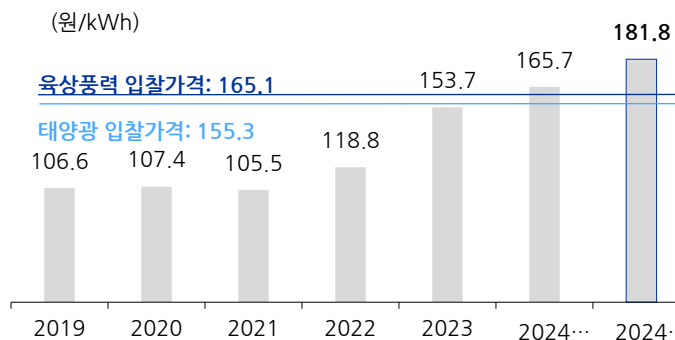
국내 그린산업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육상 풍력, 태양광 입찰 가격이 산업용 전기요금 낮아지고 있고, 탄소장벽 규제는 높아지면서 수요 증가. RPS 제도에서 입찰제도 전환되는 것도 원인.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과 기자재 업체들 모두 수혜

ESG/그린산업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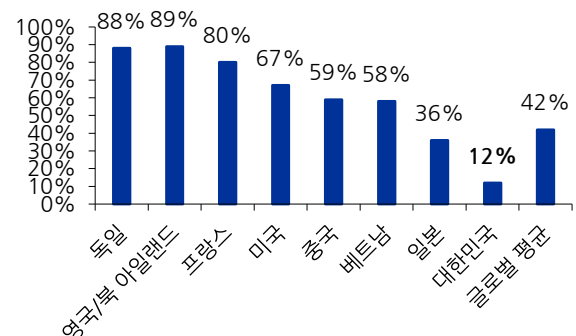
- 국내 RE100 기업들의 풍력, 태양광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 또는 협상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
- 주 원인은 1) 산업용 전기 요금이 육상 풍력, 태양광 입찰 단가 대비 높아져 기업들에게 경제적이고 2) RE100 고객들의 준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3) EU의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글로벌 ESG 공시 규정이 확정되는 등 기업들의 산업 활동 하나 하나에 탄소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2026년에 국내 제도가 RPS와 REC 위주에서 국가 입찰로 전환 예고된 상황. REC를 스팟 시장에서 판매해 온 사업자들은 시장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 직접 구매 계약(PPA)로 전환하는 것도 주원인. 국내 태양광 누적 설치량 중 약 6~7GW가 스팟 시장 계약자들로 추정. 이들 중 상당부분이 PPA 시장의 공급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
- 국내 RE100 대기업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12% 이행률에 불과해 PPA 수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내년 초 확정될 기업 ESG 규정에 탄소배출 관련 공시 의무화 예상. 밸류 체인 공시까지 추가되면 압박 심화될 것. 기업 입장에서 탄소배출 감축 이행에 가장 쉬운 방법은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 한전의 높은 부채비율,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데 반해 태양광, 풍력 입찰 단가는 규모의 경제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 높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PPA 확대로 연결
- 수혜주: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이들이 개발 중인 풍력, 태양광 단지가 RE100 기업들과의 구매 계약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 태양광, 풍력 기자재 업체들 중 국내 수요 비중 높은 곳들도 수혜

산업용 전기요금 > 육상풍력과 태양광 입찰가격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가별 RE100 달성율, 대한민국 기업들 최하위



자료: Climate Group,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9.30 기준)